

환경에서의 정의

기독교가 환경정의를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유정철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을 지켜보며

지난 해 5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출간된 지 16개월이 지났다. 보통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할인 판매에 들어가면서 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책은 아직도 꾸준히 서점의 가판대에, 그것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다. 연말에 행해진 한 설문조사 결과를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받아서 가장 싫어할 거 같은 선물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꼽았단다.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출판 시장이 불황이라고 하는데, 왜 『정의란 무엇인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결코 재미있지도, 읽

기에 쉽지도 않다는 점이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개념이 쉽게 와 닿지도 않는 자유지상주의나 공리주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궁금해졌다. 그 인기의 이유와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의 독자층일까에 대해 나름대로 상상해 보았다.

인간의 소외만큼 중요한 자연의 소외

정치인이나 시민운동가들은 이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옳은 일 하기'나 '평등주의의 문제와 삶의 불공정성', 그리고 '정의와 공동선의 정치'에 관심을 두었을 것이



창조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다루지 않는 기독교 세계관은 절름발이이며 무의미하다. 인간이 '창조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밑줄 그으며 정독했음에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의롭지 못한 삶'을 감추기 위해 『정의란 무엇인가』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들고 다니거나 책장에 꽂아두고는 이 책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면서 말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대학입시 논술 대비용으로 이 책을 사서 읽었을 수도 있다. 이유가 어떠하든, 이 책이 지속적으로 베스트셀러인 걸 보면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소망이 있는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다. '인간의 소외' 관련해서는 많이 언급 되었으나 '자연의 소외'는 거의 다루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본 공리주의나 공동선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도 주고 있지 못했다.

마치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처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었다. 그 역시 한 때는 병든 세상을 구하려면 인간과 자연의 소외를 함께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자본론』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 소외 문제에만 집착하고, 다른 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어쩌면 당시 마르크스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궁극에는 둘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자연환경 오염이, 그가 그토록 죄악시했던 서방 세계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기도 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환경정의

우리나라는 '특별법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정권 말에는 각종 연안지역과 내륙을 개발할 수 있는 특

별법들이 등장했다. 현 정부에서도 친수구역 관련 특별법 등이 예정돼 있어 4대강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친수구역의 범위. 국가하천 경계 양안 2km 이내 지역을 최소 50% 이상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물 주변 자연환경을 더 이상 지켜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국립공원 내에서조차 각종 개발 사업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정의'를 가져야 할까? 기독교는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자연의 소외 문제 해결'과 '옳은 일 하기'에 그 역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나는 "창조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다루지 않는 기독교 세계관은 절름발이(lame)이며 무의미하다(empty)."고 말하고 싶다. 성경은 모든 동물들에게 신이 부여한 생존권과 본질적 가치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생명체가 다음 세대로 유전(遺傳)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사람과 함께 이 창조세계의 일원으로 계속 남아있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구원하셨다. 적어도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은 살아남아 다음 세대를 형성하도록 배려하셨던 것이다. '창조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는 생물들이 대량 멸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3천여 마리의 코뿔소 가운데 1



1. 코뿔소를 죽인 뒤 뿔만 잘라간 모습 2. 환경단체 직원들이 마취를 시켜 힘이 빠진 코뿔소를 주저앉게 하고있다. 3. 뿔을 자르기위한 마취시간도 각각 달라 빠른 시간내 잘라야 한다. 4. 밀렵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뿔만 잘라낸 코뿔소의 모습
 자료참고 http://blog.yahoo.com/_2LOZQ4D5FZVP2OM4JRUS5SPFLM/articles/29735

천여 마리가 짐바브웨에 서식한다. 이 곳 환경단체들은 1994년부터 코뿔소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방법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 보통은 서식지 복원 노력을 중심으로 보호 운동이 이뤄진다. 하지만 코뿔소의 경우, 밀렵꾼들 보다 먼저 그들을 발견해 뿔을 잘라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코뿔소 뿔에 대한 수요가 높아 밀렵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극동지역에선 민간 약재와 최음제로, 중동지역에선 고급 단검용 손잡이로 뿔이 사용된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짐바브웨 관광객들은 정상적인 뿔이 있는 코뿔소를 보기 힘들게 될 것 같다. 상징적인 코뿔소는 잃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한 때 북미 대륙에서 가장 흔한 들새였던 미국 나그네비둘기(passenger pigeon)는 이미 멸종되었다. 이들의 큰 떼가 지나가면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였으므로, 이 새가 멸종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미국 대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철도가 놓이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철도 건설 노동자를 위한 식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상품화되어 이웃 여러 마을로 신속하게 공급되었다. 사냥꾼들은 어린 새나 늙은 새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다. 기록에 의하면 1855년 뉴욕의 거래처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비둘기 18,000마리를 매매한 사실도 있다. 1869년 한 해 동안, 한 지역에서 750만 마리의 나그네비둘기가 포획된

그 동안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자연과 인간의 창조성 회복'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창조세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이다.

기록도 있다. 이러한 남획으로 인해 나그네비둘기 수는 격감하였고, 19세기 후반 더 이상 큰 번식 집단을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희귀한 종이 되어 버렸다. 1894년에 동지 하나가 마지막으로 발견되었으며, 1914년 신시네티 동물원에서 최후의 한 마리가 죽음으로써 이 새는 멸종되었다.

교회, 자연과 인간의 창조성 회복에도 관심을 갖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조차도 너무 혹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땅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 식물을 잘 키우고 열매 맺도록 안식년을 주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명령에 따라 자연을 관리하면, 땅이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어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자연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레 25:19).

그 동안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창조 세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창조세계 속에 뛰어들어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오늘날 교회는 영성 훈련, 영적 전쟁, 구원, 예수 재림, 종말의 징조 등에는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심지어 '자연과 인간의 창조성 회복'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작품(창조세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뿐만 아니라 땅과 짐승과 세상 모든 것에 미친다고 기록하고 있다(창 6:5~7, 사 24:1~5, 렘 4:22~28, 욥 1:10~17), 호 4:1~3).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식물과 모든 자연이 서로 화목하고 축복 받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렘 26:3~6, 욥 5:23, 사 35:1~2, 호 2:18~22). 다시 말하면, 창조세계에서 지혜롭게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한히 성장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땅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꽃, 그리고 모든 자연을 잘 돌보고 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유정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행동생태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동물생태학>, <행동과 사회>, <환경철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부설 한국조류연구소 소장이며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상임대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공동대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감사 등을 맡고 있다.